**창0103 Note**

**◆이정표: 빛과 어두움 그리고 죄의 본질**

(썬다 싱, 그 발 앞에 엎디어 p49에서)

1. 죄는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케 하려고, 진실하고 정당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와 같이 행하는 데서는 참 행복을 얻지 못하며 참 희락을 맛볼 수 없다.

죄는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창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떤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든지 오직 한 분의 창조자가 있을 뿐인데 그는 선하심 그 자체이다.

선하신 창조주는 한 가지 악이라도 만들어 내실 수는 없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미 창조된 것을 악하게 할 뿐이요, 아무 것도 창조할 힘은 없다.

그러므로 죄는 창조물 중의 하나가 아니요, 창조될 만한 독립의 존재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다만 존재의 허위적인 상태에 불과하다.

예컨데 빛은 실재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이다.

그러나 어두움은 물체가 아니요 다만 빛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죄와 악은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의 부재(不在) 또는 무(無)를 말하는 것이다.

이 악의 암흑상태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 바른 길을 잃고 사탄의 암초에 걸려 파손하고 어두운 음부에 떨어져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상의 빛인 나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사람들을 암흑에서 구하여 안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그곳에는 암흑의 이름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계2123. 그리고 그 성(城)은 그 안에서 비추기 위해, 태양도 달도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셨으며, 또 어린양이 그곳의 빛임이라.

계2215.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매춘부를 사는 자(포르노스:남창,난봉군,방탕자,매춘부)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사랑하며 지어내는 누구든지 밖에 있음이라.

1. 너는 왜 어두운 죄의 상태가 창조주인 내 앞에 나타났느냐고 물었다.

죄가 일어난 이유는 사탄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케 하려고 불법적이고 그릇된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지 못하였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약 기계와 같이 지음을 받으면 그가 자신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상태로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궤계와 속임수에 빠진 것은 그들이 죄 없는 상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서 사탄 자신도 그들을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도록 한 교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기 전에 교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탄은 죄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러한 상태에 새로운 광명의 빛을 비춰 주셨다.

그러므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결과를 취하셨다.

첫째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성육신과 속죄를 통하여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경우에는 숨겨져 나타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죄의 고통을 맛본 자도 속죄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충분히 맛본다. 마치 쓴 것을 맛본 후에 꿀맛이 더욱 단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화목과 순종하는 사랑으로써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벗겨진 하나님의 뜻의 겉옷이 다시 입혀지는 사건** ; (바니 존스, 말의 권세에서)

수년전 주님은 제게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의 겉옷을 입는 것(mantling of His Will)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막1436.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바(아람어로 아버지), 아버지시여, 모든 것들이 당신께는 가능하나이다, 나로부터 이 잔을 치워주소서,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 할 때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적인 겉옷, 즉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중략 .. )

이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적인 겉옷이 벗겨졌고,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혹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사람들은 혼이 정결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며,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우리가 에덴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꿈을 꿉니다만, 그 동산은 우리가 찾아야 할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동산이 아닌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다시 옷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갈망이 하나님 한분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과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그런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 예수께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과정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